

#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자

## -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

창세기 1:1-3, 골로새서 2:1-5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 되어 이 구원의 복음을 보며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니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237 나라 5000 종족 살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 메시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 복음, 그리스도만 못 깨닫는다. 메시야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신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게 삼위일체이다. 그리스도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분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영육 간의 응답을 주신다. 한 번도 문헌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를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이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인데 복수로 되어 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이로 보건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이 히브리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단수 복수처럼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 깊음을 원어로 보면 먹을 수 없는 흙탕물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 공허는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수면은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인 것이다. 즉 흙탕물 위에 하나님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을 만드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한글 성경으로는 백 번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의미 부여는 가능하지만 원어가 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의외로 기초적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어떤 분이 노아 시대 나무로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냐고 질문을 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자연과 나무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이렇듯 자신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한 신학 공부를 한 지식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다. 월남전에 참전을 하였던 분인데 미군들의 군수물자나 무기를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군들이 한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아닌 나라는 다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교회에 나가셨다고 한다. 조금만 고민을 해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벽부터 일하는 북한은 왜 못 사는가?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6.25 전쟁 때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교회 세우고 교회에 헌신, 헌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지난 주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를 했다. 여전히 공급경보가 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 때 기도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이후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되었음을 전달하며 우크라이나도 그럴 것이라고 말을 했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야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기독교와 종교지 그리스도와 성령은 잘 못 되지 않았다.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가 성경과 다른 길을 가니까 유럽도 이상해지고 있다. 계속 망하고 가정은 깨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 사는 나라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를 보니 상해에서 2500명을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시켰는데 어떤 격리된 여자분이 아파트에서 소리치르는 영상이 올라왔다. 알고 보니 그 가정 안에 3

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격리를 해야 해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한다. 과거에 중국 인구가 10억이었을 때 공산당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5억이 죽어도 5억이 남는다고 하더라. 복음이 빠진 사상은 생명을 경시하고 인류를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 책임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교회들 때문이다. 인권을 존중하게 된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인간들 인간답게 만들고 진정으로 인간들의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니체는 천체적인 철학자이다. 그는 인기가 많았는데 위험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다.’도 당시 분위기에겐 위험한 발언이다. 있는 질서를 깨는 건 좋은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니체도 결국 미쳐버린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보다는 당시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니체의 아버지가 목회자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릴 때 니체에게 복음을 제대로 주지를 못하니까 결국 니체는 괴짜만 시키는 철학자가 되었다. 괴짜만 시키면 안 되고 재창조하고 융합을 해야 한다. 부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철학의 내용을 보면 결국 고대 시대 로마의 철학이다. 거기에 담겨있었다. 문제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거듭나게 된다. 복음을 전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야만 그 과정과 사회가 행복해진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빨리 결론 내기를 바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먹고 살까 갈등하고 연애, 미래, 공부, 직장 고민이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조금만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고민을 24시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만들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고민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꼭 해야 할 고민이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동생이나 쌍둥이 성령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약 55주전에 에베소서의 말씀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 받은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70현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골로새서 4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에베소 두란노의 제자들을 통하여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골로새서 4장 12절로 16절을 보면서 설명하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만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아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도우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간 제자이다. 4장 13절이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계속 기도하고 수고도 했다. 70현장을 순회하며 현장의 문을 계속 열어 간 제자였다. 4장 15절이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너희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역할을 맡아 놓바라는 여제자가 제자가 되어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 한국도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지금도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다음에 도전할 것이 미션홈이다. 대학청년들이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을 세워 훈련 받을 수 있는 현장인 RUTC를 도전해야 한다. 놓고 기도하고 집도 알아 봐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아야 한다. 4장 16절이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회람서신이라고 한다.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하고 모르면 물어보는 믿음의 공동체였다. 또한 골로새서는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기도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 1.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말씀 드려겠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을 막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1) 2장 4절을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신천지 같이 그런 사람이 많다. 신천지가 많은 청년과 성도들을 유혹하였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이단이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청춘 보상 청구’라는 명목으로 신천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까 고민한다. 여호와 종인, 물론고 다 조직이 굉장하지만 진리가 아니고 속이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세속적인 지식인 그리스 로마의 철학사상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실상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사상은 사람들이 속이는 것들이다. 철학과를 대학에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철학 사상이 진리는 아닌데 교수들이 굉장한 진리처럼 말을 한다.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 사회의 문제를 전혀 해결 못 했다. 대학이 많은데 문제가 가장 많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기술로 전쟁한다. 약한 나라 침범한다.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지금 그 사상 때문에 청년들이 다 죽고 육적인 것만 하고 있다. 주식, 비트 코인에 빠져있다. 사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 물질 중심이라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성실히 나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이 안 된다. 대부분의 철학사상은 진리도 아니고 철학자들의 불완전하고 편협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라고 절대적인 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다 공부해야 하지만 그 내용의 문제와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

이 들으면 다 진리인 줄 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다. 그런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모든 학문에 적용한다. 근거도 없는 거짓말인데 그렇다.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 우리 랩넛트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한 지식과 사상과 철학은 인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지전승하심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비교하면 초종교문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21세기지만 철학을 보면 결국 주장이 그리스 로마사상 수준이다. 그게 진리라고 청년들이 착각하는 사회의 풍토를 만들어 놔으니 다 죽이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유대인의 구약의 절기와 날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과거에는 제사를 다 지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안식일 지낼 필요 없다. 주님이 함께하니 24시 평생 안식을 누리면 된다.

## 2. 큰 두 번째에서는 골로새서에서 알려주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복음과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비밀은 기도이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서는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기도를 왜 해야 하고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 성도, 랩넛트, 중직자, 한국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적인 잘 못 된 철학과 이단에 속아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무시하고 타락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구원 받았으니 계속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현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얻도록 기도하라.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

①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1:15 “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②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16 “③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④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⑥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17 “또한 ⑦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⑧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② 1장 18절이다. “①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② 그가 근본이시요 ③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④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것에 근본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의 첫 열매요 으뜸이 되셨다.

③ 1장 19절에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충만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안 한다. 문제가 오면 믿음을 보여줄 때고 하늘 보좌를 보여줄 때이다.

④ 또한 1장 21절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원수였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 못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 돌아가셔서 화해의 장이 열린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혼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⑤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⑥ 2장 13절로 14절에서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싹 지우셨다.

## 3. 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해주고 있다. 그 이전에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완전 복음이다.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

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천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원래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 살게 하셨던 분이요. 제가 평신도일 때는 항상 전도를 했는데 목사 되니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서 전도를 두고 70현장을 세우는 것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탁구대도 만들었다. 어제는 뚝섬 한강 공원에 가서 윈드 서핑을 알아 봤다. 대학청년 같이 가서 전도도 하고 70현장을 세워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위의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뭐할까 미래가 고민되면 5분만 눈 감고 기도하면 된다. 위의 것을 고민하게 되기를 바란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절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과 애인 안 준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애인도 친구도 가정도 다 있다. 복음 안에서 친구도 사귀어야 한다. 복음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지 안 그러면 지옥 된다.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또한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면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복음만 붙잡지 않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으면 휩쓸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데 무서울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선으로 이기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이겼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하면 된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서는 영광과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영광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봐야 한다.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3장 16절에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디락방, 지교회, 미션홈이다. 우리 안에 말해야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최고의 축복이다.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보면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 나와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이 될 수 있되 부모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3장 22절로 4장 1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린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나라” 또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였고 끝으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커버넌트 언약이다.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여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평생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창조주하나님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다 알려주어야 한다.

3. Dream 드림 꿈이다. 만약 24시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목상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문제 앞에서 단 5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미리보고, 미리갔고, 미리누리고, 미리정복하고, 미리성취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비밀들을 목상하고 기록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생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설파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굳게 붙잡고 어디를 가든 7랩넛트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